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
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
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
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
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97호 현대불교

29

2012년 7월 18일(음 5월 29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이 일체를 다 이끌어 갑니다

어떻게 마음공부를 해야 할지요

문 최근에 현대불교신문에서 스님의 법문을 접하면서 다시 한 번 저의 삶을 되돌아보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문외한이 어떻게 마음공부를 해야 할지 몰라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이 우주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만사의 모든 살림살이는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내 마음에 연결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여러분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속에 여러분의 몸을 끌고 다니는 마음의 주인이 있습니다.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나의 그 마음의 주인, 주인공, 이 자체가 모든 일체를 다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그 주인공은 항상 일체 만법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림살이 하는 모든 것을 다 거기다가, 내 마음 주인공에 맡기고 '모든 것은 거기서만이 이끌어 줄 수 있다. 거기서만이 나를 물리가 터지게 해 줄 수 있다. 거기서만이 병고를 낫게 해 줄 수 있다. 모든 애고를 면해 줄 수 있다.' 하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한군데 맡기고 가시는 겁니다. 생활하시는 겁니다.

어째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부터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그 몸뚱이를 끌고 가는 운전수와 같은 겁니다. 운전수가 차를 끌고 가듯이 말합니다. 이 마음은 차가 없어서 광대무변하면서도 이 세상 전체 우주를 그 마음에 담기도 손색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 인간의 모든 물질적인 현상은 바람과 흙과 물, 불, 이 네 가지가 모두 여러분의 바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네 가지가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 이 자체가 바로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광대한 법이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갈 때에, 즉 말하자면 컴퓨터에 여러분이 과거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듯이, 현실에 모든 것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현 생활 속에서 그렇게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

오는 것처럼 이 생활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한테, 자기 마음 깊은 정신세계의 주인공한테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살아 나갈 때에 바로 컴퓨터에 입력했던 것이 없어지고 되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주인공에 다 맡겨 놓으면 되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되입력을 함으로써 앞서 입력된 것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영계성이라든가 유전성, 세균성, 업보성, 이 모두가 다 과거로부터 현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거기다가 입력을 다시 되할 때, 주인공에 다시 입력을 할 때 앞서의 모든 것이 없어지면서 현실에서도 모든 것을 타파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을 즉, 창조해 내는 것입니다.

주인공이라 하는 것은 영원한 근본이 되고, 마

음을 내는 거며, 육신을 움직여주는 거며, 그 삼합이 한데 합쳐서 작용하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공입니다. 모든 것은 지금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타의에서 구하는 즉, 미신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두 내 자신의 참마음의 주인공을 믿고 모든 것을 거기다가, 어떠한 애고든지 거기다가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셨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정신세계의 참나의 자성 자신은 이 우주와 이 세상과도 전부 연결이 돼서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타의에서, 바깥에서, 즉 '주어! 부처님이여! 하나님이어!' 하고 바깥으로 찾지 말고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내 자신의 주인공,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작용을 할 때 100%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집착하는 마음 때문일까요?

문 마음공부에 인연돼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내 자신의 문제는 잘 놓아지는 것 같은데 가족이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는 놓는다 하면서도 제대로 놔지지 않습니다. 집착하는 마음 때문일까요?

답 이 마음이라는 게, 빛은 가다가도 어떠한 연고가 생기지만 마음은 은산철벽도 뚫을 수 있고 어디로든, 남의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자식이나 남편이 정히 안됐을 때 내 마음이 그쪽으로 투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말합니다.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관찰 때에 바로 내가 남편한테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남편이 아내한테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아주 특별한 인연이 되고 그러는데, 어찌 나만은 안 그렇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이 나쁜 사람이 생기는 것도 마음의 조작입니다. 돈이 있어도 도둑질하고 싶어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뭐 죽일 것도 아닌데 죽이거든요. 또 이게 마음의 조작이란 말입니다. 고가 있느니 집착이 있느니, 그게 고와 집착만 없으면 멀이 되고 이라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이 집착, 집착이 없으면 욕심이 없고 그렇다면 고라는 건 없어요. 모든 게, 모두가 우리가 만들어서 '고' 라고 하는 거지.

보세요. 강물 흐르듯이 흘러갈 거를, 기껏 그냥 흘러갈 거를 붙잡는단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은 이렇게 되고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하고 집착하고 하나가 강물이 그냥 흘러가다가도 그냥, 그냥 가서는 걸려 버려요. 그러니 안될 수밖에. 왜 안되겠어요? 마음은 차가 없어서 강물 흘러가듯 하는 건데, 고정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고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는데, 이것 보면 저것 봐야 하고 저것 보면 이것 봐야 하고, 이것 들었으면 저것 들어야 하고, 저 사람 만났으면 이 사람 만나야 하고, 이것 했으면 저것 해야 하고 이게, 매사가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고정됨이 없이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듯이 그렇게, 그냥 말을 해도 벌써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대로 과거로 흘러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붙잡아요, 자꾸. 여러분이 살면서 붙잡는 게 고(苦) 인(因)이예요. 잘되는 건 붙잡지 않는데 잘못되면 더 더욱 붙잡고 늘어져요. 아, 좀 느긋하게, 어떠한 회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느긋하게 좀... 나무가 자기 뿌리 없이 사는 거 보셨습니까? 뿌리가 있기 때문에 썩어 사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뿌리에서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서 썩으로 올라보내야 썩이 푸르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냥 자기 뿌리는 언다가 팽개치고 이름이나 형상을 보고 찾아다니며 기도를 하려고 하니 그게 통신이 되나요? 이 나무가 저 나무한테 에너지를 달라고 그러면 주게 될까요? 자기 뿌리만이 자기 나무를 이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살지 못하게 자기네들이 마구 붙들고 그대 가지고선 그릇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건 다 놓고

☞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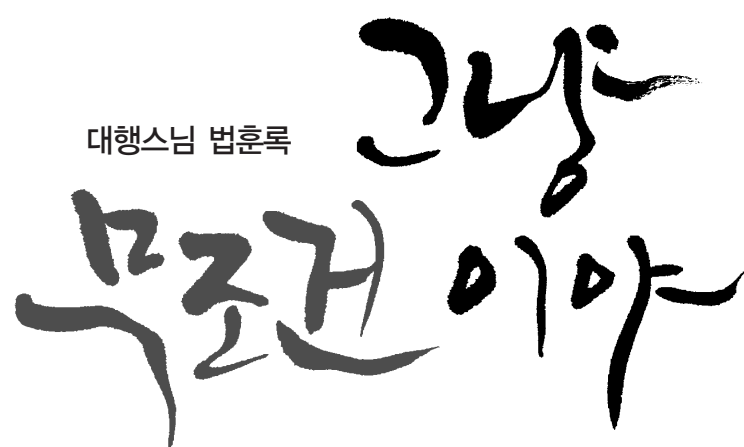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헌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헌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